

지역 환경 파수꾼으로 거듭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사찰주변 생태계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하고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통도사, 영축환경보존위 발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사찰주변 생태계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하고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통도사는 최근 2개월 만에 불법 건축으로 운행중지된 밀양얼음골 케이블카에 이어 신불산 케이블카 계획, 밀양풍력발전단지, 울산-함양 간 신불산 터널 계획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통도사는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이래 현재까지 환경을 잘 보존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다. 청정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사찰 수행환경을 보

호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영축환경보존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2월 19일 통도사 영상홍보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사회국장 도안 스님, 이병인 부산대 환경학

영축산은 3세의 복합유산 수행환경 보존에 앞장설 터

과 교수 등 학계,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산 스님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영축산 일대의 생태계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이병인 부산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는

"불교유산은 문화·자연·종교유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三世)의 유산이기에 불교의 사회적 시대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찰림을 활용한 불교수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밀양시민연대 대표는 "보존이 잘 된 수려한 자연관광지역으로 최고로 선호하는 관광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도사 일대의 사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통도사처럼 천년 이상을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공간에 대한 개발은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축환경보존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도사 사회국장 도안 스님, 부위원장에 밀양 시민연대 이철현 대표, 통도사 산하 환경단체인 푸른영축지킴이 배대진 단장이 내정됐다. 또한 통도사·표충사·내원사·석남사 소속 스님 5명,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 전문가 5명, 마장진환경연합 임의자 정책실장 등 환경단체 4명, 흥순경 도의원 등 시도의원 3명, 김수철 통도사청년회장 등 수행단체 4명, 주민대표 2명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 도안 스님은 "영축환경보존위원회는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영축산의 파수꾼이 되어 170여 말사와 함께 환경보존에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건전한 청소년 문화 만들 터

조계종 동화복지재단 청소년수련원 개원

조계종 동화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2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2층 문수관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주호영 국회의원, 류병선 9교구 신도회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화사 풍물패 김놀이, 청소년댄스 동아리 공연후 개원 기념 테이프 컷팅, 기념식, 수련원 시설 관람,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동화복지재단 이사장 성문 스님은 "1천 5백년의 역사가 있는 교구 동화사에 서는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퍼져 공동체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2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의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는 명품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시권 자연친화 체험, 교육,수련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무명사, 불교대학 개원 성료

제1기 신입생 150명 입학

부산 무명사(주지 무명)는 '바른 불교, 바른 실천'을 교육지표로 무명사불교대학을 개원하고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2월 18일 부산 남산동 무명사 3층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지 무명 스님, 윤일현 금정구의회 의장, 동명대 김중수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0명의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무명사 불교대학은 5개월 과정으로 매



무명사불교대학 신입생 대표 고은비씨가 입학선서를 하고 있다.

주 월요일 마다 불교예절, 시명스님의 찬불가, 심리와 종교, 불교미술, 불교교리 등이 진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운문유치원 졸업식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2012년 제5회 졸업 및 수료식을 2월 19일 개최했다.

2008년 1월 경산시 사동에 자리 잡은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은 5학급 인가 후 2012년 3월까지 제5회 입학식과 함께 2013년 2월 19일까지 총 195명의 수료생 및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사장 일진 스님,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학장 흥륜 스님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식순에 따라 연혁보고가 있은후, 증서 및 재원상,개근상, 육바리밀상의 상장 수여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항 불교-천주교 합동 신년교례회 개최

포항지역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2월 20일 포항 '웨딩 아이린'에서 합동 신년교례회를 갖고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주교대리전재전 신부 등 양 종교 성직자와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덕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와 천주교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웃과 나라발전의 초석이 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꾸꾸자

사찰마당에 등장한 천막법당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날씨도 추웠다. 입춘과 우수가 지난 지금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으니 그야말로 엄동설한이라는 것은 이번 겨울을 두고 이르는 말이 분명하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오면 사찰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특히 사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옥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가 많다. 한옥이라는 것이 본래 벽이 얇고, 틈새가 많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를 막아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온돌을 놓지 않은 법당 같은 경우에는 법회를 열거나 기도를 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어서 다른 건물에 비해 걱정의 정도가 심하다. 게다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법당

을 따뜻하게 데울 전열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나 겨울이 되면 스님들도 신도들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신도들이 부쩍 늘어나고, 행사도 많아지면서 법당의 이용율이 예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찰의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중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열거나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님들은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미안하고 신도들은 난감할 뿐이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봄, 가을철이나 덥지는 해도 여름철에는 마당에 서서라도 법

회나 대형행사에 동참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당에 설치한 천막인 것이다.

최근에 많은 사찰에서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법당을 만들어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법회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천막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보니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저 눈보라와 바람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사찰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사찰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불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천막법당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사찰의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천막법당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조사찰

20주년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3월3일 입재

(구담자모암 법당불사 새로 완공 되었습니다)

구담자모암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 매년 양력 3월.6월.9월.12월 첫째 일요일 천도재 합니다.

2013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부터 태아영가 참회기도 입재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는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배움에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도 안 된다. 생명을 가진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무명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 인연에 의해서 나며, 인연에 의해서 존재 하면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였으며,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업이 <살생>이라고 하였습니다.

- 망 태아영가도 한 생명입니다.
- 낙태되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할 귀한 생명이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 부모는 그 업보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 태아영가는 위 조상님과 함께 천도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엄마, 아빠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태아의 영혼이 다음 생애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참회기도 천도재 합니다.

- 오늘날** ※ 입재 : 양력 3월 3일 (천도재 입재)
- ※ 3재 : 양력 3월 24일 (엄마, 아빠참회 참회기도) ※ 6재 : 양력 4월 14일 (구병시식)
- ※ 5재 : 양력 4월 7일 (관욕하는 날) ※ 7재 : 양력 4월 21일 (회향, 끝나는 날)

준비물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등 (갤러리 참고) (지의 옷과 신발은 사찰에서 판매함)

계좌번호 국민은행 :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 225051-51-113712 구담사



버스운행
1호차 : 조계사 앞 (7:00 출발) =>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 (7:40) => 길음역 10번 출구 (8:00) => 미아삼거리역1번 출구(8:10) => 수유역1번 출구 (8:20) => 동봉산역 (8:30) 의정부터미널 (9:10) => 구담사
2호차 :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 (8:30) => 광나루역3번 출구 버스정거장 (8:35) => 구리역 앞 롯데백화점 (8:40)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배 관계로 접수는 미리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자모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5 **NAVER** 구담사 <http://gudamsa.org> 문의 : 031)529-2855